

모두 발언

2024. 9. 4. (수) 10:00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금융감독원
원장이복현

상기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은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인사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귀하신 걸음을 해 주신 만큼

대출 창구 현장의 애로사항과

여러 전문가분의 고견을 함께 들어보고,

당면한 가계대출 관리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II 가계대출 관리의 필요성

최근 주택시장 회복 기대와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하고 있어

여러모로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과거 여러 차례 경험했던 것처럼
주택시장 회복 시기에
공급과 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차입을 동반한 주택구매가 확산되고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실수요자분들의 심리적 불안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가계부채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1년부터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별 DSR 제도를 도입하였고,

올해 2월에는 금리 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번 달부터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Ⅲ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관련 당부사항

최근에는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요하지 않은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인 위험 관리방안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쏘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출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므로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기업회사 등
쏘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보험·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일일 모니터링 체계 가동

금융당국도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함과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PF 재구조화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급측면에서도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융당국과 대출수요자가 원활히 소통하여
실수요자 여러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대출 시 겪었던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맺음말

오늘 간담회는

실제 대출수요자분들이 현장에서 겪고 계시는 어려움과
전문가의 정책적 고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말씀해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가계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금융권과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기해 주신

주택 공급 등 주택정책과 관련한 제언은
유관부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금융소비자분들과 전문가, 업계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